

# 한국 기업이 지속불가능한 팜유 유출 시장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

Chain Reaction Research 은  
Aidenvironment, Profundo 와 Climate  
Advisers 의 연대체입니다

문의사항:  
[www.chainreactionresearch.com](http://www.chainreactionresearch.com);  
[info@chainreactionresearch.com](mailto:info@chainreactionresearch.com)

저자:  
Sarah Drost, Aidenvironment  
Barbara Kuepper, Profundo  
Matt Piotrowski, Climate Advisers

도움 주신 분들:  
Shin Young Chung, APIL  
Jinsuh Cho, APIL  
Chris Wiggs, Aidenvironment  
Okita Miraningrum, Aidenvironment



## 2020 년 12 월

본 보고서는 전 세계 팜유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역할과 팜유 사업지의 소유주 및 팜유 상품의 구매자, 팜유 사업의 자본가로서 한국이 갖는 위치를 다룬다. 특히, 비(非) 산림파괴, 비(非) 이탄지 개발, 비(非) 착취 정책(No Deforestation, No Peat, No Exploitation, NDPE)을 준수하지 않는 팜유 재배자 및 생산자로부터 지속불가능한 팜유가 거래되는 시장, “지속불가능한 팜유 유출 시장(leakage market)”에서의 한국의 역할에 주목한다.

## 결론:

- 한국 기업은 지속불가능한 팜유 유출 시장에서 플랜테이션 개발업자 및 팜유 상품 구매자로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NDPE 정책 준수를 약속하는 추세가 세계 팜유 업계에서 강화되고 있는 한편, 산림파괴와 연관된 재배자들은 지속불가능한 팜유를 계속해서 국제시장으로 유출(leak)시키고 있다.
- 다음의 한국 기업 6 개는 환경, 사회 및 인권 문제에 관련하여 상당한 불이행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스코인터내셔널, 코린도그룹, 삼성물산, 대상주식회사, 주식회사 LG, 제이씨케미칼
- 코린도와 포스코는 6 개의 기업 중 가장 큰 규모의 산림파괴를 하고 있다. 2016 년과 2017 년 동안 두 개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지에서 17,500 헥타르 이상의 숲이 개간되었다. 뿐만 아니라 대상주식회사는 2016 년 이후 플랜테이션 사업지에서 이탄지 347 헥타르를 개간하였다.
- 한국 재배자는 중요 거래처의 거래정지(suspension) 조치에도 불구하고 구매자를 계속해서 찾고 있다. 코린도와 포스코는 NDPE 정책을 이행하지 않는 인도 정제업체, 특히 Emami

Agrotech 와 3F Industries 에 지속 불가능한 팜유를 유출하고 있다.  
주식회사 LG 또한 인도 NDPE 미준수 시장에 기여하고 있다.

- **인도네시아 팜유 및 팜 파생물의 가장 큰 한국 구매자들- 제이씨케미칼, 단석산업, GS 글로벌, AK 홀딩스, 주식회사 LG, SK 에코프라임-은 NDPE 준수 약속을 하지 않았다.** NDPE 미준수 구매자에게 공급하는 기업으로는 Incasi Raya, Runas Baru Lampung, Best Industry Group, the Salim Group, Wings Group 이 있다.
- **산림파괴와 인권침해 문제에도 불구하고 한국 및 유럽 금융기관은 해외에서 사업하는 한국의 지속불가능 유출 팜 재배자에게 자금조달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 삼성생명보험을 포함한 몇몇 한국 투자자들은 산림파괴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 유럽 은행 중에는 BNP 파리바, SC 제일은행, HSBC 가 '제로 산림파괴' 정책을 갖고 있으며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블랙록과 뱅가드(Vanguard)는 이 플랜테이션 개발사들의 주요주주이다.

## 팜유 산업의 긍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연결된 '지속불가능한 팜유 유출 시장'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세계 팜유 산업에서 NDPE 정책을 약속하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는 한 편, NDPE 미준수 재배자들은 지속불가능한 팜유를 계속해서 국제시장에 유출시키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세계 지속불가능 팜유 유출 시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코린도 그룹, 포스코인터내셔널, 대상주식회사 등이 시장으로 지속불가능한 팜유를 유출시키는 한국 국적 재배자들이다. 세 기업 모두 2016 년 1 월 1 일 이후에도 인도네시아의 플랜테이션 사업지에서 열대우림과 이탄지를 개간하였다. 2016 년 1 월 1 일은 NDPE 준수를 위한 마감일로 흔히 인정되고 있다.

2020 년 4 월 기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경우 팜유 정제 용량(capacity)의 83%에 NDPE 정책이 적용되고 있지만 다른 지리적 시장의 경우 이처럼 높은 적용률을 보이지 않는다. 인도와 중국,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는 가장 큰 규모의 지속불가능한 팜유 유출 시장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재배사 코린도와 포스코, LG 는 Emami Agrotech 와 같은 인도의 NDPE 미준수 정제업체에 팜 조유(Crude Palm Oil, CPO)를 공급하고 있다.

## 한국의 NDPE 미준수 재배자들은 산림파괴 및 인권 침해에 연결되어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 코린도그룹, 삼성물산, 대상주식회사, 주식회사 LG, 제이씨케미칼 6 개 기업은 인도네시아에서 팜유 플랜테이션 사업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인도네시아에서 235,512 헥타르(ha) 규모의 팜유 플랜테이션을 운영하고 있으며(표 1), 이는 인도네시아의 팜유 사업지 총 면적 2,230 만 헥타르의 1%에 해당한다. 이 비율이 작게 보일 수 있지만 이들의 플랜테이션 사업지가 야기하는 사회적, 환경적 영향은 상당하다.

코린도 플랜테이션 사업지의 생산량을 제외한 이들의 보고된 연간 CPO 생산량(연료 및 가공식품 목적)은 41 만 톤이다(표 1). 코린도는 팜유 생산량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다. 1 헥타르당 CPO 4~5 톤이 생산된다고 볼 때, 코린도의 재배지 추정 면적 79,808 헥타르(사업지 면적에서 좌초토지 *stranded land* 면적 53,318 헥타르를 뺀 숫자)에서 30 만 톤이 추가적으로 생산된다고 추산된다. 이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국적 재배자의 연간 “유출된 팜유”의 생산량, 즉 지속불가능한 팜유 생산량은 총 71 만 톤에 육박한다.

위에 언급된 한국 팜유 재배자 중 누구도 현재까지 NDPE 정책을 이행하지 않았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2020 년 3 월 “한국 최초 NDPE 선언”을 발표하였지만 이행 방안이나 계획에 관한 정보는 공개된 것이 없다. 삼성물산 상사부문의 인도네시아 팜 플랜테이션은 2019 년 5 월, 지속가능한 팜유를 위한 라운드테이블(Roundtable on Sustainable Palm Oil, RSPO)에서 인증을 받아 “인도네시아에서 팜 플랜테이션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으로는 최초로 RSPO 인증을 획득”했다고 하지만 삼성물산은 아직까지 팜 공급자 공개 목록을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NDPE 정책을 전체적으로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

2019 년, 한국의 시민단체인 환경운동연합과 공익법센터 어필은 팜을 재배하는 한국의 6 개 기업이 인도네시아에서 수많은 환경적, 사회적, 인권 문제와 연결되어 있음을 밝혔다.

**표 1: 인도네시아에서 팜유 플랜테이션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

| 기업           | 자회사   | 사업지 (ha)/위치   | NDPE 정책 존재 여부                 | 보고된 CPO 연간 생산량(톤)          |
|--------------|---|---|-------------------------------|----------------------------|
| 코린도 그룹       | PT Papua Agro Lestari<br>PT Gelora Mandiri Membangun<br>PT Dongin Prabhawa<br>PT Berkat Cipta Abadi 1 과 2<br>PT Tunas Sawaerma 1A 와 1B, 2 | 133,126 /<br>파푸아(Papua), 북부<br>말루쿠(North<br>Maluku)       | 존재하지 않음                       | 공개된 정보 없음<br>추산치 > 300,000 |
| 포스코<br>인터내셔널 | PT Bio. Inti Agrindo  | 34,184 /<br>메라우케(Merauke),<br>파푸아                         | <u>존재함</u><br>(아직 이행되지<br>않음) | <u>80,000</u>              |
| 주식회사 LG      | PT Parna Agromas<br>PT Tintin Boyok Sawit Makmur<br>PT Tintin Boyok Sawit Makmur<br>Dua<br>PT Grand Utama Mandiri                         | 31,513 /<br>세카다우(Sekadau),<br>서부 칼리만탄(West<br>Kalimantan) | 존재하지 않음                       | <u>150,000</u>             |
| 삼성물산         | PT Gandaerah Hendana 와 PT<br>Inecda Plantation  | 21,703 (RSPO: <u>23,830</u><br>ha)/<br>펠라라완(Pelalawan)    | 존재하지 않음                       | <u>100,000</u>             |

|                        |  |  |         |                |
|------------------------|--|--|---------|----------------|
|                        |  | & 인드라기리<br>홀루(Indragiri Hulu),<br>리아우(Riau)  |         |                |
| 대상주식회<br>사/미원<br>인도네시아 | PT Sintang Raya 와 PT Miwon<br>Agro Kencana Sakti (사업지<br>없음) | 11,212 / 쿠부<br>라야(Kubu Raya),<br>서부 칼리만탄   | 존재하지 않음 | <u>35,000</u>  |
| 제이씨케미<br>칼             | PT Niagamas Gemilang   | 3,774 (JC Chemical:<br><u>7,200 ha</u> ) / 쿠타이<br>카르타네가라(Kutai<br>Kartanegara), 동부<br>칼리만탄 | 존재하지 않음 | <u>45,000</u>  |
| 합계                     |  | <b>235,512 ha</b>  |         | <b>710,000</b> |

출처: 사업지 데이터(HGU, 지적도 등)와 기업 홈페이지에 기반하여 Aidenvironment 제공

### 코린도와 포스코의 산림파괴 및 인권침해에 대한 연결성

한국 기업 코린도 그룹과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인도네시아 파푸아에서 산림 16,674 헥타르를 개간하였다. 파푸아의 메라우케, 보벤 디겔(Boven Digoel), 마피(Mappi) 지역에서 코린도의 자회사 PT Papua Agro Lestari (PT PAL)와 PT Tunas Sawaerma 1B, PT Dongin Prabhawa 는 그들의 사업지에서 총 3,714 헥타르와 562 헥타르의 산림을 2016 년과 2017 년 각각 파괴하였다. 뿐만 아니라 같은 기간 동안 코린도는 인도네시아 북부 말루쿠에 있는 8,432 헥타르 규모의 사업지에서 930 헥타르를 추가적으로 개간하였다. 이 기업들은 토지를 개간하기 위해 **불법적인 방화**를 사용했다. 추가적인 플랜테이션 개발에 대한 **중단 조치**가 2017년부터 시행되었지만 코린도는 아직까지도 그룹 차원에서 NDPE 정책을 채택하지 않았으며, 인도네시아의 **현지 지역 공동체**와의 갈등 및 보상 계획 관련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고, 산림파괴가 이미 일어난 지역에 대한 보상 및 회복을 약속하지도 않았다.

코린도의 PT PAL 사업지 근처에서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자회사인 PT Bio. Inti Agrindo(PT BIA)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34,184 헥타르 규모 사업지의 36%(12,398 헥타르)를 개간하였다(표 2). 2012년부터 2017년까지 PT BIA 는 산림 **26,500 헥타르**를 파괴하였다. 이 중 12,398 헥타르는 2016년의 NDPE 준수 마감일 이후 파괴된 것이다. PT BIA 는 또한 불법적인 **방화**로써 토지를 개간하였다.

표 2: 2016년 이후 발생한 코린도와 포스코의 산림파괴

| 기업 | 자회사 | 위치(구역, 주, 지역) | 사업지<br>면적 (ha) | 산림파괴 면적 (ha) |      | 산림파괴 총<br>면적 (ha) |
|----|-----|---------------|----------------|--------------|------|-------------------|
|    |     |               |                | 2016         | 2017 |                   |
|    |     |               |                |              |      | 2016~2017         |

|           |                             |   |        |               |              |               |
|-----------|-----------------------------|---|--------|---------------|--------------|---------------|
| 코린도 그룹    | PT Papua Agro Lestari       | Merauke, Papua, Papua                   | 25,203 | 1,854         | 562          | 2,416         |
|           | PT Tunas Sawaerma 1B        | Boven Digoel, Papua, Papua              | 11,351 | 1,192         | 0            | 1,192         |
|           | PT Gelora Mandiri Membangun | Halmahera Selatan, Maluku Utara, Maluku | 8,432  | 911           | 19           | 930           |
|           | PT Dongin Prabhawa          | Mappi, Papua, Papua                     | 33,537 | 668           | 0            | 668           |
| 포스코인터내셔널  | PT Bio. Inti Agrindo        | Merauke, Papua, Papua                   | 34,184 | 7,134         | 5,264        | 12,398        |
| <b>합계</b> |                             |   |        | <b>11,759</b> | <b>5,845</b> | <b>17,604</b> |

출처: 사업지 데이터(HGU, 지적도 등)와 기업 홈페이지에 기반하여 Aidenvironment 제공(Sentinel 위성 1호, 2호)

**코린도와 포스코는 인권침해 및 고보존가치(High Conservation Value, HCV) 구역의 손실과 연관되어 있다.** 2017년, 국제산림관리협의회(Forest Stewardship Council, FSC)의 진정 위원회는 코린도 그룹이 PT PAL, PT Gelora Mandiri Membangun (GMM) 사업지에서 산림파괴와 방화로 고보존가치 구역을 파괴함으로써 FSC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코린도는 현지 지역 공동체가 충분히 인지된(informed)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인권을 침해하였다. 그러나 2019년 11월, FSC는 코린도를 제재하지 않고 완전한 FSC 규정 이행을 위한 5년의 시간을 더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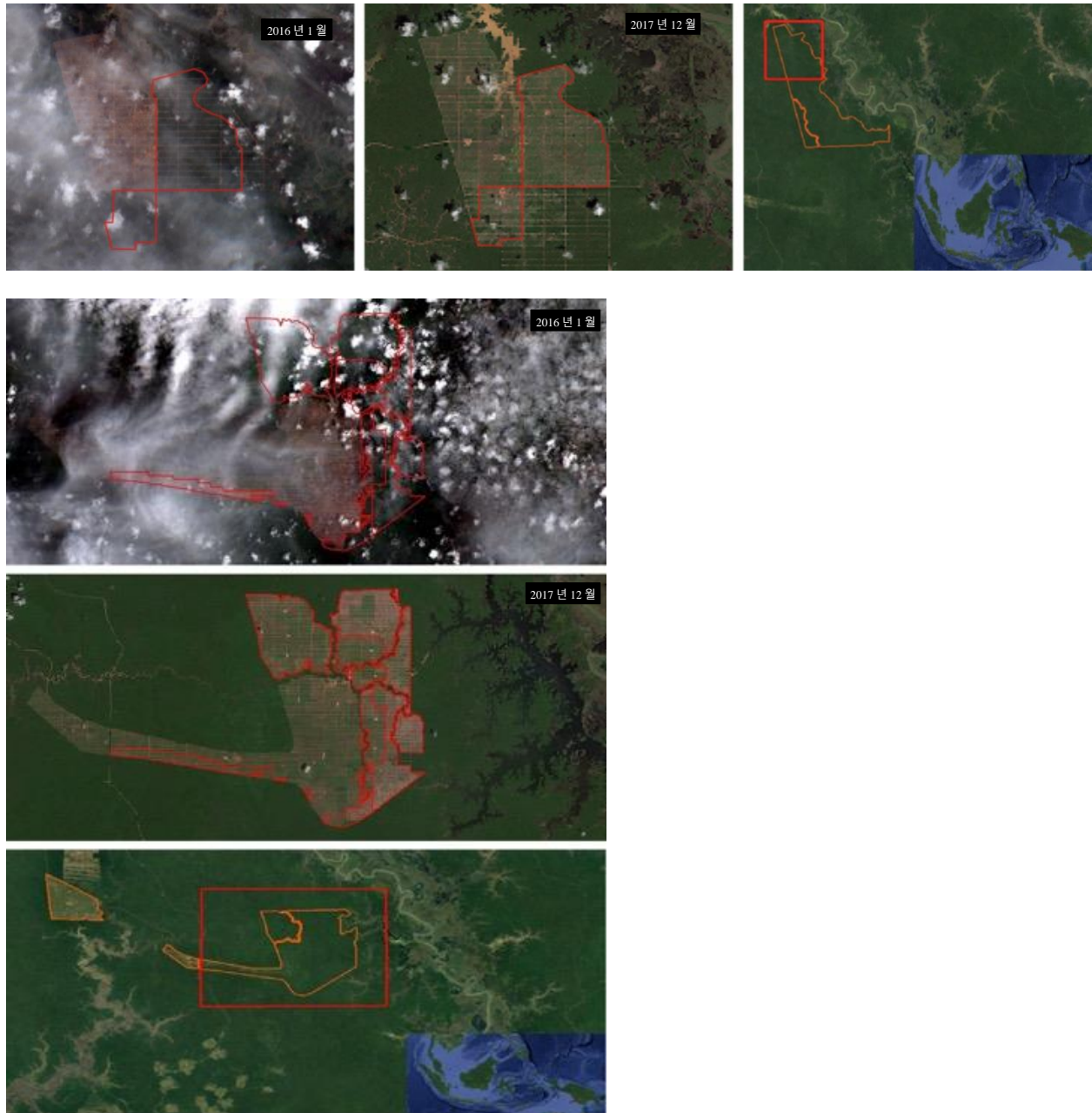
2020년까지도 코린도의 인도네시아 사업은 여전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2020년 5월, 한 토착민 남성이 코린도의 자회사 PT Tunas Sawa Erma 사무실에서 경찰에게 구타당해 사망에 이른 사건이 보고되었다. 피해자는 “그의 바나나 플랜테이션에 본인이 접근할 수 없게 만든 토지 수탈(land grabbing) 문제에 대해 논의”하려 했다고 보고된다. 추가적으로 2020년 6월에는 Mongabay,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 Al Jazeera가 인도네시아 파푸아 주에 위치한 코린도의 PT PAL이 중요 토지 거래에 대한 “자문” 비용으로 미화 2,200만 달러를 지불한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하였다. 이 비용은 순환출자 및 투명성이 낮은 관할권에 등록된 62개의 페이퍼 컴퍼니 등 코린도의 불투명한 소유구조에 의해 은폐되었다고 한다. 코린도는 당사가 100% 인도네시아 국적이라고 주장하지만 한국 법원은 2018년 창업주인 승씨 일가에 탈세 혐의로 벌금 9천만 달러를 선고하였다. 이 탐사보도는 “한국 경제를 지배하는 거대 가족기업의 주요 특징인 순환출자”를 지적하였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자회사 PT BIA는 토착민 씨족들 간의 토지분쟁과 플랜테이션에서의 수질 오염을 악화시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PT BIA가 토착민 관습적 소유권을 갖고 있는 만도보(Mandobo) 부족이 아닌 마린(Marin) 부족에 보상금을 주어 두 공동체 간의 분쟁이 악화되었다고 한다. 플랜테이션 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포스코의 사업으로 인한 비안



강(Bian River)의 오염 문제 또한 지적하였다. 이전에 발생한 산림파괴에 대한 보상으로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개발된 플랜테이션 면적과 대응하는 규모로 사업지 밖에서 프로그램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2020년 2월, 포스코는 플랜테이션 개발로 인해 신성한 숲이 파괴된 것에 대해 마린 부족에게 2억 루피아(14,132 달러)를 보상금으로 지급했다고 한다. 이는 공동체가 30억 루피아(212,300 달러)를 요구해 예상되었던 금액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다.

**표 3: 2016~2017 발생한 산림파괴 및 코린도와 포스코 플랜테이션 사업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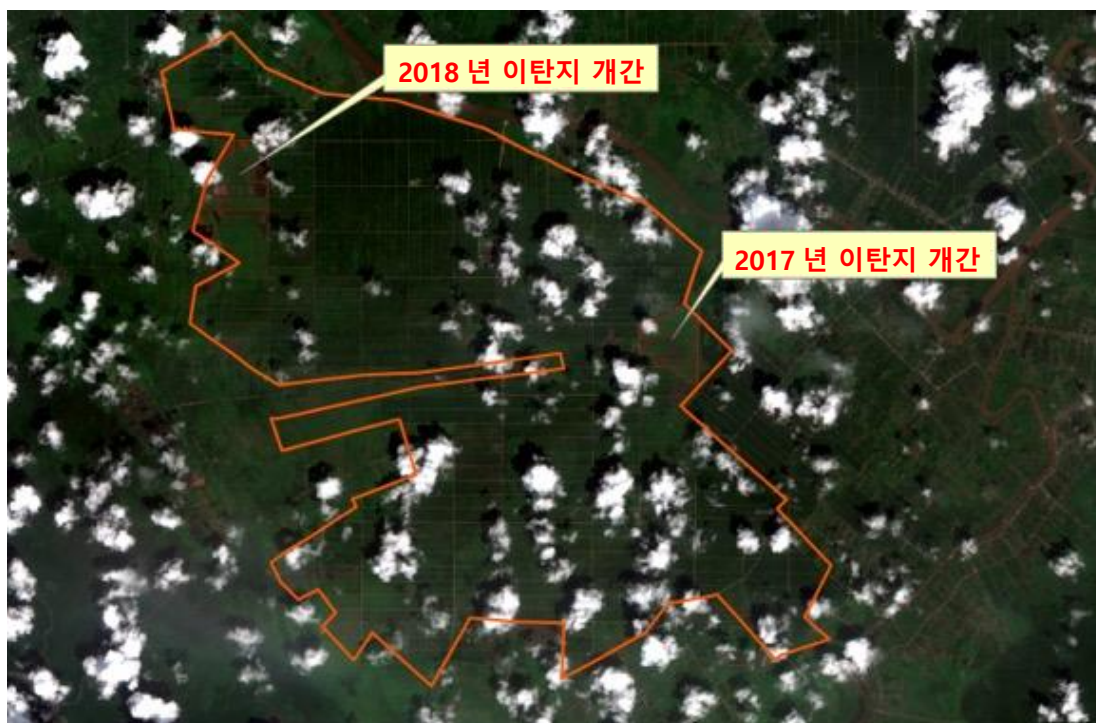
출처: 산림파괴(Sentinel 위성 1호, 2호) 및 지적도 데이터에 기반하여 Aidenvironment-Earth equalizer 제공. 위: 코린도의 자회사 PT PAL. 아래: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자회사 PT BIA.

포스코인터내셔널과 코린도 그룹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코린도는 당사의 PT PAL 플랜테이션 바로 옆에 위치한 PT BIA 플랜테이션에 대해 포스코에 조언을 주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두 플랜테이션 자회사 모두 한국 기업가 김남구에 의해 2007 년과 2006 년 각각 설립되었다.

### 대상, 삼성, LG, 제이씨케미칼의 플랜테이션 자회사는 환경, 사회 및 인권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한국 국적 팜 재배 기업 대상주식회사, 삼성물산, 주식회사 LG 와 제이씨케미칼은 코린도, 포스코처럼 인도네시아에서 사회, 문화 및 인권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대상주식회사는 2016 년 이후 플랜테이션 사업지에서 이탄지 총 347 헥타르가 개간된 것에 연루되어 있다(표 4). 대상주식회사는 브랜드 미원에서 조미료 등 소스를 생산하고 브랜드 청정원에서 식품을 생산한다. 대상주식회사의 플랜테이션 자회사인 PT Singtang Raya 는 2017 년에 148 헥타르, 2018 년에 199 헥타르 규모의 이탄지를 개간하였다. 추가적으로 Pontianak Regency 의 Seruat Dua 마을 공동체는 PT Sintang Raya 가 그들의 사전 동의 없이 토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회사가 지역 공동체들을 위해 플라즈마 플랜테이션(plasma plantation)를 분배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플랜테이션에서의 노동 문제와 아동 인신매매의 위험 또한 보고되었다.

표 4: 2017~2018 서부 칼리만탄에서 대상주식회사가 개간한 이탄지





출처: Aidenvironment-Earth Equalizer. 대상주식회사의 자회사 PT Sintang Raya

수마트라(Sumatra) 리아우에 위치한 삼성물산의 플랜테이션 자회사 PT Gandaerah Hendana 와 PT Inecda 는 토지 갈등, 수질 오염, 보상 및 노동 문제에 연루되어 있다. 삼성물산 상사부문은 바이오디젤 사업을 위한 안정적인 팜유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2008 년 플랜테이션 2 개를 인수 완료하였다. 삼성물산과 인도네시아 기업 Athena City Holdings 의 합작투자회사인 PT S&G Bidofuel Pte. Ltd 는 팜 플랜테이션의 인수와 사업에 5,500 만 달러를 투자하였다. 2016 년,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이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토지 42 헥타르가 본인들의 소유라고 주장하였다. 플랜테이션 근처의 지역 주민들은 의식을 치르기 위해 사용되는 공간의 파괴, 수질 오염 및 물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플랜테이션 노동자들은 과도하게 긴 노동시간, 안전장비 없는 독성 화학물질의 사용, 열악한 주거환경을 호소하고 있다. 이로 인한 보상 요구를 위해 지역 주민들과 노동자들은 2020 년까지 계속해서 시위와 파업을 벌이고 있다.

주식회사 LG 의 공장 3 개와 플랜테이션 4 개에서는 토지 갈등과 오염 문제가 제기되었다. 서부 칼리만탄의 세카다우에 위치한 Semadu 마을 주민들은 2010 년 보존구역인 그들의 토지 318 헥타르가 LG 의 자회사 PT Parna Agromas 의 플랜테이션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PT Tintin Boyok Sawit Makmur Dua 근처에 거주하는 주민들 또한 그들의 토지와 플랜테이션 사업지가 겹치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PT Tintin Boyok Sawit Makmur 는 2015 년 수질오염을 발생시킨 혐의가 제기되었으며 PT Grand Utama Mandiri 는 2019 년 토지 개간을 위해 방화를 사용한 혐의가 제기되었다.



한국 바이오디젤 생산기업인 제이씨케미칼은 자회사 PT Niagamas Gemilang 을 통해 폐기물 투기에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제이씨케미칼의 자회사 PT Niagamas Gemilang 은 동부 칼리만탄에 위치한 쿠타이 카르타네가라에서 플랜테이션과 공장을 운영하며 CPO 와 팜핵유(Palm Kernel Oil, PKO)를 생산한다. Aidenvironment/Earth Equalizer 가 측정한 바에 의하면 이들의 사업지는 3,774 헥타르 규모이지만 제이씨케미칼은 작부면적을 7,200 헥타르로 보고하고 있다. 쿠타이 카르타네가라의 산림환경청은 2017 년 PT Niagamas Gemilang 이 쟬바얀 강(Jembayan River)에 폐기물을 투기하여 수질 오염과 어류폐사를 발생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 한국 재배자들은 거래정지에도 불구하고 지속불가능한 팜유 유출 시장을 계속해서 찾고 있다

### 코린도는 거래정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NDPE 미준수 팜유와 목재를 생산하고 있다

코린도 그룹은 2016 년과 2018 년, 산림파괴, 불법 방화 및 사업지 내 HCV 구역 상실에 대한 책임으로 다수의 NDPE 거래사로부터 거래정지 조치를 받았다. Nestlé 와 Bunge Loders Crokiaan, Wilmar, Cargill 등은 코린도로부터 구매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코린도는 2016 년까지 숲 3 만 헥타르를 개간하였으며, 이 중 7 개 사업지에 걸친 12,000 헥타르는 일차림이었다. 이 외에도 1998 년부터 2016 년까지 코린도의 사업지에서 5 만 헥타르가 개간되었다. Aidenvironment/Earth Equalizer 의 최근 추산치는 인도네시아 파푸아에 위치한 코린도의 플랜테이션 내 온전하게 유지된 숲과 이탄지 53,318 헥타르가 개발이 불가능한 좌초토지로 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거래정지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코린도는 2019 년 지역 바이오연료 시장에 진입하였다. NDPE 시장 진입에 제한을 받는 기업들이 관례상 지속가능성에 대한 요구가 덜한 동남아시아의 바이오연료 산업으로 방향을 트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한국 기업 지에프오일, 주식회사 세종기술과의 합작을 통해 코린도는 인도네시아의 빈탄(Bintan) 섬에서 바이오연료 공장을 설립할 계획에 참여하고 있다. 이 공장은 코린도의 팜유를 사용하며 3 단계 완료 시점까지 바이오연료 약 3 백만 톤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코린도는 계속해서 인도의 NDPE 미준수 정제업체로 팜유를 유출시키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3F Industries 와 Emami Agrotech 에 유출시키고 있다. 2019 년, 코린도는 인도에 팜유 46,480 톤을 수출하였는데 이 중 23,510 톤(51%)은 3F Industries, 18,483 톤(40%)은 Emami Agrotech 가 수입하였으며, 나머지 4,487 톤(9%)은 기타 기업들(Golden Agri-Resources, Mantora Oil Products)이 수입하였다. 3F Industries 는 Emami Agrotech 다음으로 큰 기업으로, 인도 CPO

수입의 34%를 차지하는 가장 큰 NDPE 미준수 정제업체 7개 중 하나다. 이 인도 다국적 기업의 사업 포트폴리오는 주로 식용 지방과 기름, 화장품, 유지화학제품(oleochemicals), 약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도의 Krishnapatnam 과 Hyderabad, Tadepalligudem, 그리고 가나의 Tema 에 가공 시설이 있다.

Emami Agrotech 는 인도의 대기업인 Emami 그룹의 식용유와 바이오디젤 사업부문을 담당하고 있다. Emami 그룹은 소비재 및 신문용지, 포장재 제조업, 식용유 및 바이오디젤, 부동산, 리테일 사업을 주로 한다. Emami Agrotech 는 인도에서 두번째로 큰 규모로 식용유를 수입하며 전세계에서 NDPE 정책이 없는 가장 큰 가공업체/거래사 중 하나이다. 이 기업이 소유한 Haldia(서부 벵갈)와 Krishnapatnam(Andhra Pradesh)의 정제공장은 하루 총 5천 톤의 팜유를 정제할 수 있다.

NDPE 미준수 팜유를 생산하는 것 외에, 코린도는 (연기된) 2021 년 도쿄 하계 올림픽의 목재 공급자로 알려졌다. 2018 년, 코린도는 일본의 목재 및 건축재 거래사 Sumitomo Forestry 에 합판을 공급하였으며 Sumitomo Forestry 는 도쿄의 아리아케 아레나에 목재를 공급하였다고 알려졌다. Mongabay 는 코린도가 2000 년부터 2017 년까지 파푸아의 코린도 팜유 플랜테이션 회사들이 수확한 목재로 미화 3 억 1,990 만 달러어치의 합판을 생산했을 것으로 예상했다.

### **포스코인터내셔널, 주식회사 LG 은 인도의 NDPE 미준수 시장에 계속해서 기여하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열대림을 개간하여 팜유 플랜테이션으로 개발한 것과 관련하여 투자철회 및 거래정지를 당했다. 노르웨이 정부연기금과 ABP 는 2015 년과 2018 년, “환경 파괴”를 이유로 포스코(당시 포스코대우)로부터 투자철회를 했다. ABP 는 “기업[포스코]이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에 대해 신뢰를 잃었다”고 했다. NGO 들의 활동이 이어진 후, 영국 최대 드럭스토어 리테일러 Boots 는 포스코와의 리테일 협력관계를 종료하였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의 팜유는 코린도와 다르지 않게 인도의 NDPE 미준수 정제업체 **Emami Agrotech** 와 **3F Industries** 로 팜유를 공급하고 있다. 포스코는 2019 년 인도에 CPO 56,397 톤을 수출하였는데 이중 80%(45,261 톤)는 Emami Agrotech 로, 20%는 3F Industries 로 수출되었다. Emami Agrotech 로 공급된 모든 팜유는 파푸아의 Asike 항구에서 바로 출발했으며, 3F Industries 에 공급된 나머지 11,136 톤은 수마트라의 Dumai 항구를 거쳤다.

주식회사 LG 또한 인도의 NDPE 미준수 정제업체에 팜유를 공급하였다. 인도네시아 수출 통계에 따르면, 주식회사 LG 는 CPO 22,481 톤을 수출하였으며 이중 4,001 톤은 Emami Agrotech 로 바로 공급되었고 3,076 톤은 3F Industries 에 공급되었다. 인도 외에 주식회사 LG 는 말레이시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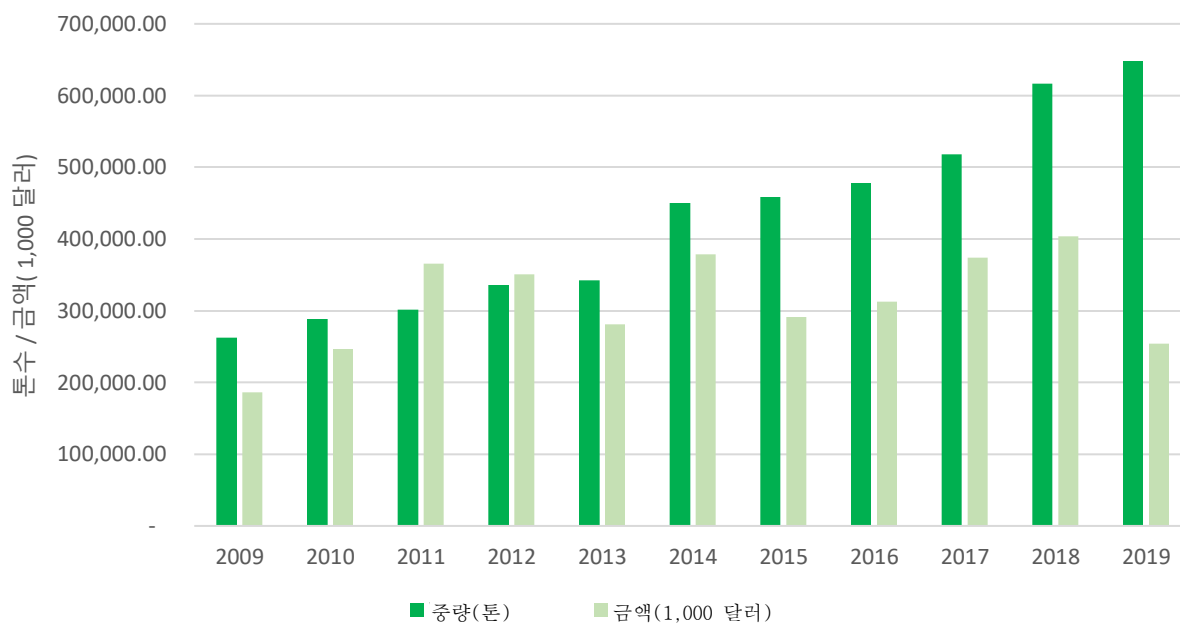
Felda IFFCO 에 CPO 5,001 톤을 또한 공급하였다. 삼성은 말레이시아의 IOI 에 CPO 3,010 톤만을 수출하였다.

대상의 플랜테이션 자회사 PT Sintang Raya 는 [AAK](#), [Bunge Loders Crocklaan](#), [Wilmar](#), [Sime Darby](#) 와 [General Mills](#) 의 공급자 공개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제이씨케미칼의 자회사 PT Niaga Mas Gemilang 은 [Fuji Oil](#), [Cargill](#), [General Mills](#), [Louis Dreyfus Company](#), [Golden Agri Resources](#) 와 [Lipidos Santiga](#) 의 공급자 공개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 팜유 무역 및 소비에 한국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팜유 수입량은 지난 10 년간 두배 이상 증가하였다. 2019년에는 648,496 톤의 팜유 및 팜유 상품이 한국 도착 후 [세관신고](#) 되었으며, 이는 2009 년 신고된 262,556 톤과 대비된다(표 5). 2020 년 중반까지의 수입은 2019 년 수입규모의 61%를 이미 넘었으며, 따라서 이러한 증가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0 마케팅 연도에는 팜유 수입 규모가 [70 만 톤](#)으로 전망된다.

표 5: 2009~2019 한국 팜유 수입



출처: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팜유 및 팜유 파생물과 연관된 7 개 HS 코드에 기반하여 제공. 팜지방산증류물(Palm Fatty Acid Distillate)에 대한 무역통계진흥원의 세관 데이터는 2020 년 5 월 이후의 것만 존재하므로 해당 팜유 가공 부산물은 위 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팜유 수입 및 소비 증가는 식품 가공업과 현지 바이오디젤 생산에서 주로 기인한다. “대두유보다 실용적이고 값싼” 팜유는 한국에서 주로 [식품 가공업](#), 특히 라면 생산에 사용된다. 라면은 [현재](#)

한국에서 미국과 일본, 중국으로 향하는 농식품 수출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한국 팜유 국내 총 소비량의 65%(45 만 톤)는 공업용으로 국내에서 소비(대체로 바이오디젤)되고 나머지(24 만 톤)은 국내 식품 소비로 사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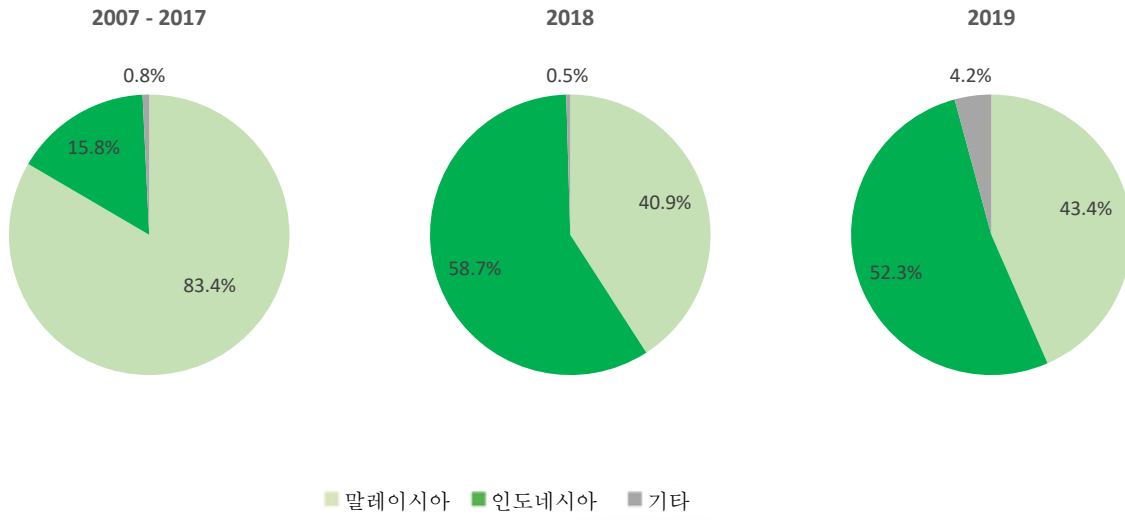
2019 년과 2020(3 분기까지)년 해운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로부터 팜지방산증류물(Palm Fatty Acid Distillate, PFAD) 395,000 톤을 수입하였으며 이중 130,288 톤은 인도네시아에서 수입되었다. 그에 비해 한국 세관은 PFAD 정보를 2020 년 5 월에야 수입 통계에 통합하기 시작했다. PFAD 는 바이오디젤, 동물 사료, 양초, 비누 생산에 주로 사용되는 팜유 가공 부산물이다. PFAD 는 팜유보다 저렴하고 낮은 온도에서 얼지 않아 겨울철 환경에서 유연한 상품(flexible product)이 될 수 있다. PFAD 의 주요 수입처는 한국 바이오디젤 생산업체인 SK 에코프라임(전 SK 케미칼)으로, 2019 년과 2020(8 월까지)년 인도네시아가 수출한 PFAD 의 79%를 수입하였다.

한국 바이오디젤의 식물성 기름 함량 강제규정(vegetable oil content mandate)은 값이 더 저렴한 팜유로 이어졌다. 한국의 바이오디젤 산업에서 대두유 소비량은 최근 팜유의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 사라졌다. 그러나 “바이오디젤의 식물성 기름 함량이 현수준에서 더 증가할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마케팅 연도 2020/2021 의 팜유 수입량은 2019/2020(70 만 톤)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8 년부터 현재까지 바이오디젤 강제규정은 3%에서 변하지 않았다.

한국에의 팜유 공급자로서 인도네시아의 역할이 강화되었다. 2016 년까지 한국은 주로 말레이시아로부터 팜유를 수입했지만 지난 4 년 동안은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된 팜유를 수입하는 추세가 이어졌다(표 6). 2019 년에는 수입된 팜유의 52.3%(339,462 톤)는 인도네시아산, 43.4%(281,687 톤)는 말레이시아산이었으며, 그 외 나라에서 수입된 양은 4.2%였다. 주목할만한 부분은 2019 년 파푸아뉴기니에서 CPO 22,120 톤이 수입되었다는 것이다. 파푸아뉴기니는 이전까지 한국에 팜유를 공급한 바 없지만, 현장 정보원들에 따르면 이 CPO 의 일부는 Vanimo 에 있는 항구에서 운송되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Vanimo 근처에는 파푸아뉴기니 West-Sapik 에 위치한 Bewani Oil Palm Plantation(BOPPL)이라 불리는 플랜테이션과 공장이 있다. 수입된 CPO 는 한국 울산 항구로 도착하였다. BOPPL 공장은 NDPE 정책을 준수하지 않으며 따라서 지속불가능한 팜유 유출시장에 공급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표 6: 한국 팜유 공급자로서 강화된 인도네시아의 역할



출처: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팜유 및 그 파생물과 연관된 7개 HS 코드에 기반하여 제공(PFAD 미포함)

한국으로의 인도네시아 수출 증가에는 특히 정제, 표백, 탈취(Refined, Bleached and Deodorized, RBD) 팜 스테아린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 또한 팜유 정제 능력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인도네시아로부터 정제된 팜유 상품을 수입한다. 한국 [세관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가공식품](#) 및 화장품에 주로 사용되는 고체 분획물인 RBD 팜 스테아린이 220,556톤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되었다. 이는 말레이시아로부터 81,213톤을 수입한 것과 대비된다. 또한, 2018년 말레이시아산 PKO 및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수소를 첨가한 팜유(partly or wholly hydrogenated palm oil) 수입은 2019년 5,838톤에서 593톤, 1,187톤에서 825톤으로 각각 감소했다.

## 단 5개의 NDPE 미준수 구매자가 한국으로의 인도네시아산 팜유 수출의 78%를 차지한다

2019년 인도네시아에서 수입된 팜유의 78%는 인도네시아산 팜유의 한국 5대 구매자들(제이씨케미칼, 단석산업, GS글로벌, AK홀딩스, 주식회사 LG)이 수입한 것이었다. 이 5개 기업은 정제팜유와 정제팜유상품(팜 스테아린 및 지방알코올)만 수입하였다. 인도네시아 팜유 수출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인도네시아에서 총 272,980톤의 팜유가 수출되었으며 이는 32개의 한국 기업에 의해 수입되었다. 이 중 5개 기업이 2019년 통계의 78%(212,415톤)을 수입하였다(표 7). 마찬가지로 2020년 상반기에는 이 5개 기업이 인도네시아 팜유의 최대 수입자

자리를 차지했다. 수입자와 수출자 별로 구분된 말레이시아의 팜유 무역 통계는 공개되어 있지 않다.

**SK 에코프라임은 PFAD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한국 최대 바이오디젤 생산자이다.** SK 케미칼에서 2020 년 초 사모펀드 한앤컴퍼니에 인수된 이 기업은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연료 오일 50 만 킬로리터의 연간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다. 생산된 연료는 대부분 국내 운송업 및 발전용 혼합연료로 쓰인다. 그러나 선박용 연료에 바이오디젤을 사용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중이며, 그럴 경우 25 만 킬로리터가 추가될 수 있다. SK 에코프라임이 주된 공급원료로 사용하는 것은 PFAD 로, 한국에서는 SK 에코프라임이 최대 수입자이다. 한국 PFAD 수입의 절반 가량이 인도네시아산이며, SK 에코프라임은 이 중 79%를 차지한다.

이러한 주요 한국 구매자 중 누구도 공개적인 NDPE 약속을 하거나 팜 공급자에 대한 감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구매자들은 지속가능하지 않은 팜유를 구매할 위험이 높다. 주요 구매자들의 홈페이지에서는 환경, 사회, 인권 및 문화적 가치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였는지 감시하기 위한 팜유 공급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실사(due diligence)가 이행되고 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 거래 공장 및 불만고충 사항의 공개 목록 혹은 분리 매입한 팜유(segregated purchases of palm oil)의 증거 등 공급자에 대한 투명성 또한 존재하지 않다. 그러나 삼성물산이 2019 년 팜 플랜테이션에 대한 RSPO 인증을 받는 등, 지속가능한 공급을 위한 노력이 일부 보이기도 했다. 또한, 주식회사 LG 는 NDPE 정책을 언급하거나 채택하고 있지는 않지만 LG 의 자회사들의 이전 소유자인 PT Barito Pacific Tbk 는 2015 년 3 월 “책임있는 플랜테이션 및 산림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주식회사 LG 은 2018 년 Barito Pacific 으로부터 몇몇 기업을 인수하였는데, 이 인수합병을 통해 책임있는 산림 정책을 얼마나 수용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표 7: 2019 년 인도네시아 팜유의 5 대 한국 구매자, 수출집단 포함**

| 한국 구매자 - 수출집단                  | 팜유 수입량(톤)     | 한국 구매자 - 수출집단                           | 팜유 수입량(톤)     |
|--------------------------------|---------------|---|---------------|
| <b>JC 케미칼</b>                  | <b>59,392</b> | <b>AK 홀딩스</b>                           | <b>30,166</b> |
| Incasi Raya                    | 22,899        | Tunas Baru Lampung                      | 13,250        |
| Astra Agro Lestari             | 25,539        | PT Perkebunan Nusantara (PTPN) (2020 년) | -             |
| Musim Mas                      | 5,954         | Royal Golden Eagle                      | 6,000         |
| Wilmar International (in 2020) | -             | Musim Mas                               | 2,031         |
| Kuala Lumpur Kepong (KLK)      | 5,000         | Salim Group (2020 년)                    | -             |
| <b>단석산업</b>                    | <b>56,559</b> | Astra Agro Lestari                      | 3,000         |
| Musim Mas                      | 39,043        | Wilmar International                    | 2,994         |
| KLK                            | 6,999         | KPN Corp                                | 2,000         |

|                                |               |                         |                |
|--------------------------------|---------------|-------------------------|----------------|
| Royal Golden Eagle             | 5,000         | Cahya Nusantara Lestari | 500            |
| Astra Agro Lestari             | 3,500         | Sinarmas Cepsa          | 391            |
| Incasi Raya (in 2020)          | -             | <b>주식회사 LG</b>          | <b>19,802</b>  |
| Sinarmas Cepsa                 | 1,900         | Astra Agro Lestari      | 12,999         |
| Bakrie Sumatera Plantation     | 117           | Musim Mas               | 3,194          |
| <b>GS 글로벌</b>                  | <b>46,496</b> | Wilmar International    | 2,109          |
| Astra Agro Lestari             | 21,000        | KLK                     | 1,499          |
| Incasi Raya                    | 7,499         |                         |                |
| Musim Mas                      | 12,999        | <b>기타 구매자(27)</b>       | <b>60,555</b>  |
| Wilmar International (in 2020) | -             |                         |                |
| KLK                            | 4,998         | <b>총계</b>               | <b>272,970</b> |

출처: 인도네시아 무역 통계. PFAD와 SK 에코프라이머는 별도 해운통계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위 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제이씨케미칼과 단석산업은 재생에너지 산업에 특화되어 있으며 바이오디젤, 바이오중유 및 선박용 바이오연료가 주력 상품이다. 제이씨케미칼은 또한 팜유와 글리세린을 생산하며 단석산업은 정밀소재(PVC 안정제 등) 및 금속소재(순연)를 생산한다. 팜유를 구매하는 것과 더불어 제이씨케미칼은 인도네시아에 위치한 플랜테이션과 공장에서 팜유를 생산하기도 한다. 제이씨케미칼은 국내 국방 기관과 오일 기업들에 상품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S 홀딩스와 그외 다양한 자회사 및 계열사로 이루어진 GS는 리테일, 건설 다음으로 에너지 사업(천연가스 및 풍력)에 가장 큰 규모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GS는 한국에서 7번째로 큰 자산 규모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 자회사 및 계열사는 GS 글로벌, GS 에너지, GS 칼텍스, GS 리테일, GS 샵, GS EPS, GS 스포츠, GS E&R, GS E&C가 있다. 해외 사업 착수 및 개발은 GS 글로벌이 주로 담당한다.

AK 홀딩스 또는 애경그룹의 사업 포트폴리오는 화학, 항공운수, 가정/미용용품, 리테일, 부동산을 포함한다. 1982년, 애경그룹과 Royal Dutch Shell은 애경셀을 설립하였고, 1998년 애경정밀화학으로 법인명을 변경하였다. 2009년 통합된 에이케이캠텍은 계명활성제, 페인트 및 건설용 화학제품 제조 사업을 하며 2019년 11월 1일 RSPO 회원이 되었다. 2020년 중반까지 에이케이캠텍은 팜 공급자 공개 정보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LG는 인도네시아의 팜유 재배자일뿐 아니라 한국에서 팜유를 가장 많이 구매하는 5개 기업 중 하나이다. LG의 전체 사업 분야는 전자, 화학, 통신 및 서비스에 걸쳐있다.

### 한국 구매자들은 인도네시아 팜유 수입의 33 퍼센트를 지속불가능한 팜유 유출 정제업체에서 수입한다

한국이 대부분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산 정제 팜유 상품을 수입함에 따라 수입된 상품의 절반 이상이 거래사 및 정제업체의 NDPE 정책의 적용을 받는다. 한국은 2019 년 인도네시아에서 414,119 톤의 팜유를 수입했으며 2020 년 상반기에는 단 18 개의 팜유 거래사/정제업체에서 수입하였다. 이 거래사/정제업체 중 78%는 NDPE 정책을 갖고 있다(표 8). 양으로 본다면 2019 년과 2020 년 상반기 한국에 가장 수출을 많이한 5 개 수출업체는 Muslim Mas(103,442 톤), Astra Agro Lestari(73,038 톤), Incasi Raya(62,103 톤), Permata Hijau Group(35,446 톤)과 Salim Group(31,790 톤)이다. Incasi Raya 를 제외하면 이 업체들은 모두 그룹 차원의 NDPE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Salim Group 은 NDPE 약속을 발표했지만 이행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지속불가능한 팜유 유출 정제업체(leakage refiner)로 볼 수 있다.

표 8: 한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인도네시아 수출 집단

| 수출 집단                          | 팜유 (톤) |        |         | 그룹 차원의 NDPE 정책 존재 여부                     |
|--------------------------------|--------|--------|---------|--|
|                                | 2019   | 2020   | 총계      |  |
| Musim Mas                      | 69,433 | 34,009 | 103,442 | 존재                                       |
| Astra Agro Lestari             | 69,038 | 4,000  | 73,038  | 존재                                       |
| Incasi Raya Group              | 30,399 | 31,704 | 62,103  | 지속불가능한 팜유 유출 정제업체(NDPE 정책 부존재)           |
| Permata Hijau Group            | 11,000 | 24,446 | 35,446  | 존재                                       |
| Salim Group                    | 17,025 | 14,765 | 31,790  | 지속불가능한 팜유 유출 정제업체(NDPE 정책을 채택하였으나 이행 부족) |
| Wilmar International           | 5,255  | 15,741 | 20,996  | 존재                                       |
| Tunas Baru Lampung             | 17,000 | 3,000  | 20,000  | 지속불가능한 팜유 유출 정제업체(NDPE 정책 부존재)           |
| Kuala Lumpur Kepong (KLK)      | 18,496 |        | 18,496  | 존재                                       |
| Wings Group                    | 12,500 |        | 12,500  | 지속불가능한 팜유 유출 정제업체(NDPE 정책을 채택하였으나 이행 부족) |
| Royal Golden Eagle             | 11,000 |        | 11,000  | 존재                                       |
| PT Perkebunan Nusantara (PTPN) |        | 7,419  | 7,419   | 지속불가능한 팜유 유출 정제업체(NDPE 정책 부존재)           |
| Golden Agri-Resources          |        | 5,066  | 5,066   | 존재                                       |



| 수출 집단                      | 팜유 (톤)         |                |                | 그룹 차원의 NDPE 정책 존재 여부           |
|----------------------------|----------------|----------------|----------------|--------------------------------|
|                            | 2019           | 2020           | 총계             |                                |
| KLK-Astra                  | 4,000          |                | 4,000          | <a href="#">존재</a>             |
| Sinarmas Cepsa             | 3,100          |                | 3,100          | <a href="#">존재</a>             |
| KPN Corp                   | 2,000          |                | 2,000          | <a href="#">존재</a>             |
| Other exporters/refiners   | 899            | 998            | 1,897          | 지속불가능한 팜유 유출 정제업체(NDPE 정책 부존재) |
| Ecogreen Oleochemicals     | 1,632          |                | 1,632          | <a href="#">존재</a>             |
| Bakrie Sumatera Plantation | 193            |                | 193            | <a href="#">존재</a>             |
| <b>총계</b>                  | <b>272,970</b> | <b>141,149</b> | <b>414,119</b> |                                |

출처: 인도네시아 무역 통계, 기업 홈페이지, [CRR 보고서](#) 지속불가능한 팜유 유출 정제업체. PFAD 수출량은 포함되어있지 않으며 2020 년은 상반기만 포함하고 있음.

2019 년과 2020 년 상반기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으로 수입된 팜유의 33% 혹은 135,709 톤은 “지속불가능한 팜유 유출 재배자 및 정제업체(leakage growers and refiners)”에서 생산된 것이다. 이 업체들은 대부분 Incasi Raya Group, Salim Group, Tunas Baru Lampung, Wings Group 를 말하는데(표 8), Incasi Raya 와 Tunas Baru Lampung 은 NDPE 약속을 하지 않았으며 Salim Group 과 Wings Group 은 정책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Salim Group, Tumas Baru Lampung, Wings Group 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가장 큰 [지속불가능한 팜유 유출 정제업체 5 개](#) 중에 속한다.

### AK 홀딩스, 제이씨케미칼, SK 에코프라임은 NDPE 미준수 팜유와 PFAD 를 상당한 규모로 수입하고 있다

AK 홀딩스, 제이씨케미칼, SK 에코프라임은 유출된 지속불가능한 인도네시아산 팜유와 PFAD 에 가장 의존적이다. 이들은 NDPE 미준수 공급자들로부터 각각 64%, 40%, 33%를 공급받고 있다. 인도네시아 팜유(PFAD 제외)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기업 5 개는 NDPE 미준수 팜유 재배자와 정제업체로부터 총 28%(297,500 톤 중 83,315 톤)를 공급받는다. SK 에코프라임은 2019 년과 2020 년(2020 년 8 월까지), 인도네시아에서 PFAD [103,488 톤](#)을 수입하였는데 이 중 33%가 NDPE 미준수 PFAD 공급자로부터 공급된 것이었다.

제이씨케미칼과 단석산업, SK 에코프라임, GS 글로벌은 모두 NDPE 미준수 팜유 재배자인 Incasi Raya Group 로부터 팜유를 수입한다. Incasi Raya Group 은 2016-2019 년 792 헥타르의 숲과 이탄지를 개간하였다. 특히, 제이씨케미칼은 인도네시아에서 팜유와 고무 공급을 이 업체에 의존한다. 2019 년부터 2020 년 상반기까지 제이씨케미칼은 Incasi Raya Group 으로부터 팜유와

팜유 상품 수입 총합의 40%(2019 년 22,899 톤, 2020 년 상반기 9,990 톤)를 공급받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NDPE 준수 팜유 정제업체인 Astra Agro Lestari 와 Muslim Mas 에서는 각각 31%와 12%만을 구매하였다. GS 글로벌은 그의 2019 년과 2020 년 상반기 팜유 수입 중 27%를 Incasi Raya 로부터 수입하였고, SK 에코프라임은 2019 년부터 2020 년(2020 년 8 월까지) PFAD 수입의 14%를 이 업체로부터 수입하였다. 단석 산업은 2020 년 상반기 4%를 수입하였다.

표 9: 한국 팜유 구매자에 수출하는 주요 인도네시아 팜유 수출 집단



출처: Aidenvironment, 인도네시아 수출 통계(2019 년, 2020 년 상반기) 및 해운통계(2019 년, 2020 년 3 분기까지)에 기반하여 제공

Incasi Raya Group 은 수마트라와 칼리만탄 전반에 걸쳐 31 개의 팜유 관련 자회사를 소유하고 있으며 비축 토지(landbank) 면적은 총 322,615 헥타르로 추산된다. [Aidenvironment/Earth Equalizer](#) 의 분석에 따르면 서부 칼리만탄 Sanggau 에 위치한 이 기업의 자회사 PT Sumatera Jaya Agro Lestari 1(SJAL 1)과 PT SJAL 2 는 2016 년부터 2019 년까지 이탄지 582 헥타르와 210 헥타르를 각각 파괴하고 개간했다. 또한, 자회사 PT Sumatera Makmur Lestari 는 플라즈마 소규모 농민들로부터 불충분한 보상과 생산 수익 배분에 대해 이의제기를 받은 바 있다.

**AK 홀딩스의 인도네시아산 팜유 공급량 중 64%는 유출된 지속불가능 팜유(leakage palm oil)라고 볼 수 있다.** 2019 년과 2020 년 상반기 AK 홀딩스가 인도네시아에서 공급받은 팜유 총 48,595 톤 중 64%(31,169 톤)는 NDPE 미준수 기업인 Tunas Baru Lampung (16,250 톤), PTPN(7,419 톤), Cahya Nusantara Lestari(500 톤), “NDPE 미이행” 정제업체 Salim Group(5,000 톤)과 KPN Corporation(전 Gama, 2,000 톤)으로부터 공급된 것이었다. 2018 년 NDPE 시장에서 거래정지된 이후, Gama 는 공식적으로 기업집단으로 등록하고 KPN Corporation 으로 법인명을 변경하였다. Gama 는 파푸아와 서부 칼리만탄에 있는 사업지 5 곳에서 2013 년 이탄지 및 산림 21,500 헥타르를 **개간**한 일에 대해 Wilmar International, Muslim Mas 등에 의해 거래정지되었다.

**SK 에코프라임은 인도네시아산 PFAD 의 한국 수입량 중 33%를 지속불가능한 팜유 유출 정제업체로부터 공급받는다.** SK 에코프라임의 2019 년과 2020 년 상반기 주요 인도네시아 PFAD 공급자는 Astra Agro Lestari (30%), Wilmar (16%), Royal Golden Eagle (14%) 및 NDPE 미이행 기업 Incasi Raya (14%), Best Industry Group (13%), Salim Group (4%)과 Tunas Baru Lampung (2%)이었다. Best Group 은 인도네시아 최대 지속불가능한 팜유 유출 정제업체 중 하나이다. **CRR**은 2019 년 Best Group 이 플랜테이션에서 팜유를 위해 이탄지 약 2,300 헥타르를 개간했다고 보고했다. Best Group 은 또한 당사가 불법적으로 식재했다는 혐의를 받고는 토지 1,800 헥타르에 대한 토지 분쟁에도 연루되어 있다.

이와 같은 한국 구매자 중 주식회사 LG 만이 NDPE 이행 거래사로부터 인도네시아산 팜유를 전량 공급받은 것으로 보인다(표 9). 그러나 구매자들의 그룹 차원에서의 NDPE 약속 부재 및 공급자에 대한 감독 부족, 공급망 불투명성으로 인해 지속불가능한 팜유의 유출은 여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팜유 하류 부문에서의 주요 상품은 라면, 과자

한국의 하류 부문(downstream sector)에서 팜유는 주로 식품 가공업, 외식 산업 및 바이오디젤 산업에서 사용된다. 식품 가공업 중에서도 라면은 **식품 산업**에서 사용되는 24 만 톤의 팜유가 주로 사용되는 상품이다. 2020 년 한국 기업들은 **라면을** 46 만 톤 이상 생산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라면에 사용되는 팜유의 양은 총 **중량**의 평균 20%로, 10 만 톤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은 세계 최대 라면 소비국이다. 뿐만 아니라 2019 년 한국의 라면 수출은 4 억 6,700 만 달러를 도달했고, 미국을 최대 해외 **시장**으로 두고 지난 5 년 동안 두 배 이상 성장하였다. 2020 년 8 월까지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보존식품 구매가 증가하면서 라면에 대한 국제 **수요**는 전년도 대비 37% 급증하였다. 한국의 최대 라면 생산업체들은 표 10 에 나타나있으며, 이들 모두 팜유 정제 **능력**을 갖추고 있다.

주요 라면 생산업체들 중 NDPE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들의 공급자가 누구인지는 불명확하다.

**표 10: 한국의 주요 라면 생산기업**

| 기업              | 상품  | 2019 팜유<br>중량 (톤) | 팜유 공급  |
|-----------------|---|-------------------|--|
| 주식회사 농심         | 최대 라면 및 과자 생산 기업.<br>100 개 이상 국가에서 상품<br>판매 중 | 40,000            | 말레이시아 현물시장(spot market)에서 팜유<br>수입; RSPO 회원, <a href="#">2023년</a> 부터 인증된 팜유<br>수입 예정  |
| 주식회사 오뚜기        | 건조식품, 향신료, 지방 및<br>기름 생산                      | 알 수 없음            | RSPO 회원, <a href="#">2020년</a> 부터 인증된 팜유 수입<br>예정  |
| CJ 제일제당<br>주식회사 | 라면 외에 식용유, 설탕, 기타<br>식품 및 바이오디젤, 동물<br>사료 생산  | 3,600             | <a href="#">2018년</a> 수입한 팜유는 말레이시아산 56%,<br>인도네시아산 19%, 남아메리카산 25%;<br>RSPO 회원, <a href="#">2019년</a> 수입한 팜유의 28%는<br>인증된 팜유(식용); 2024년까지 100% 인증<br>팜유 수입 예정 |

출처: Market Research Reports [2019](#); 기업 홈페이지 및 연간 보고서; RSPO 연간 보고서

그 외에 한국에서 팜유가 흔히 사용되는 상품에는 과자, 쇼트닝, 마가린과 커피 크림 등이 있다. 튀김용 혼합오일에 사용되는 팜 올레인은 10~30%로 제한적이라 외식 산업에서 사용되는 양은 적은 것으로 추정된다. 비슷하게 가정에서 사용되는 식용유로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팜유 양도 매우 적다.

## 한국 은행 및 금융 기관, 유럽 투자자들은 지속불가능한 팜유 유출에 자원 공급을 계속하고 있다

한국의 지속불가능한 팜유 유출 공급망에서 국민연금, 삼성생명보험, 블랙록, 뱅가드, 노르웨이 중앙은행이 가장 큰 지분을 갖고 있다. 이 투자자들은 유출 공급망의 상류(upstream), 중류(midstream), 하류 부문에 모두 관여하고 있다. 팜유 유출 시장에 연관되어 있는 한국 기업의 대부분은 더 큰 복합기업에 소속되어 있다. 표 12는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 조정되었다. 조정되지 않은 자금 총액은 50억 달러가 넘는다. 이 중 노르웨이 중앙은행/노르웨이 정부연기금의 위치가 주목할만한데, 노르웨이 정부연기금은 점점 더 적극적으로 산림파괴에 투자하는 것을 피하려 하고 있다. 자금조달과 생산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한 코린도는 표 11에 포함되어있지 않지만 다음 섹션에서 논의된다.



표 11: 한국의 지속불가능한 팜유 유출 공급망 주식 보유량(조정 전)

|                      | 100 만 달러 |
|----------------------|----------|
| 국민연금                 | 3,510    |
| 뱅크드                  | 629      |
| 블랙록                  | 625      |
| 삼성생명보험               | 300      |
| 노르웨이 중앙은행/노르웨이 정부연기금 | 200      |
| 합계                   | 5,264    |

출처: Chain Reaction Research, Bloomberg, 2020.11.27 접속; 주식회사 농심, 주식회사 오뚜기, CJ 제일제당 주식회사, AK 홀딩스, 제이씨케미칼, 포스코인터내셔널, 주식회사 LG, 삼성물산, 대상주식회사. 팜유 매출량 대비 총 사업활동 비율은 조정되지 않음

한국 및 유럽의 금융기관들은 산림파괴와 인권침해에도 불구하고 지속불가능한 팜유 유출 재배자들에 계속해서 재원을 공급하고 있다. [노르웨이 정부연기금](#)과 [ABP](#)가 극심한 환경 파괴를 이유로 포스코로부터 투자철회하였지만 몇몇 한국 금융기관들은 여전히 포스코에 자금조달을 하고 있다. [Forests & Finance](#)는 2013년부터 2020년 4월까지 포스코, 삼성과 LG에 조달된 자금 총 3억 9천만 달러 중 43%가 한국 금융기관들이 조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해당 기업들의 팜유 사업에 대해서 조정된 금액이다. 예를 들어, 2018년 상반기, 한국 정부는 포스코에 [305 억원](#)(2,700만 달러)의 공채를 발행하였으며 제이씨케미칼에는 115 억원(1,000만 달러)을 발행하였다. 게다가 한국수출입은행은 포스코의 PT BIA 사업을 위해 용자를 [제공](#)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해외 플랜테이션 사업 3개의 확인된 자금 출처 중 21%는 유럽 금융기관이었다. 유럽 금융기관은 산림파괴와 연결된 공급망 구성원들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여 점점 더 높은 [평판 위험\(reputation risk\)](#)에 노출되고 있다.

표 12: 한국 팜유 플랜테이션의 확인된 자금 출처(조정 후, 100 만 달러)

| 자금 출처          | 채권  | 기업 대출 | 주식    | 주식 발행 | 채권 발행 | 합계    |
|----------------|-----|-------|-------|-------|-------|-------|
| 총계             | 7.5 | 1.7   | 143.8 | 48.5  | 188.2 | 389.7 |
| 한국 금융기관        |     |       | 54.4  | 10.2  | 102.7 | 167.3 |
| 총계 대비 비율       |     |       | 38%   | 21%   | 55%   | 43%   |
| <b>6 대 기관:</b> |     |       |       |       |       |       |
| 농협금융           |     |       | 0.7   | 3.4   | 45.4  | 49.5  |
| 국민연금           |     |       | 39.2  |       |       | 39.2  |
| 미래에셋금융그룹       |     |       | 2.7   |       | 19.8  | 22.5  |

|          |     |     |      |     |      |      |
|----------|-----|-----|------|-----|------|------|
| 한국투자금융지주 |     |     | 1.1  |     | 18.3 | 19.4 |
| KB 금융그룹  |     |     | 1.3  | 0.2 | 5.5  | 6.9  |
| 삼성생명보험   |     |     | 5.6  |     |      | 5.6  |
| 유럽 금융기관  | 0.4 | 0.9 | 15.5 | 6.5 | 59.2 | 82.4 |
| 총계 대비 비율 | 5%  | 50% | 11%  | 13% | 31%  | 21%  |

출처: Chain Reaction Research, Forests&Finance, 2020.11.7 접속; 관련있는 활동으로 범위를 좁히기 위해 조정함; 포스코, LG 상사, 삼성물산

한국 공공기관은 그들이 자금조달하는 기업에 대한 인권 정책 혹은 인권 실사의 시행에 관해 적극적인 역할을 맡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NGO 인 환경운동연합과 공익법센터 어필은 정부의 해외 사업 자금 제공 구조와 실사에 관해 연구한 결과 체계적인 용자 심사 절차가 이루어진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였다. 한국 정부는 인권실사를 위한 매커니즘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또한 “[환경, 사회, 문화]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은 기업들이 소유한 플랜테이션에서 환경 및 인권 문제가 명백하게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부터 2019년까지 포스코인터내셔널, 대상주식회사, 주식회사 LG, 고려개발(현 대림건설), 제이씨케미칼에 290 억원(2,600 만 달러)의 공채를 발행하였다. 포스코의 49 억원(440 만 달러) 규모 용자일은 2019년 4월이었다.

국민연금(다음 섹션 참고) 외에도 농협금융, 미래에셋금융그룹, 한국투자금융이주, KB 금융그룹, 삼성생명보험 등의 한국 투자자가 있다. 이 투자자들은 산림파괴에 대한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

유럽 금융기관들은 지속불가능한 팜유 유출과 연관된 한국 기업들에게 채권 발행을 활발하게 이어오고 있으며 그 중 SC 제일은행, BNP 파리바, HSBC 은행, 크레디 아그리콜(Credit Agricole)이 가장 활발하다. 크레디 아그리콜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들은 제로 산림파괴 정책을 갖고 있다.

### NDPE 미준수 포스코인터내셔널, 삼성물산, LG 상사, SK 에코프라임의 최대 투자자는 국민연금

2020년 4월 기준, 포스코인터내셔널(포스코의 자회사)에 대한 은행 및 투자자로부터의 받은 투자금 총액(팜유 관련 사업 조정 후)은 1억 3,700만 달러이다. 한국의 국민연금은 포스코에 대해 11.7% 지분을 갖고 있어 12.3%를 소유한 블랙록 다음으로 두번째로 큰 지주이다. 팜유 사업 활동을 하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포스코가 지분 63%를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이며 국민연금이 5.4%를 소유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한국의 최대 투자자이자 자산 777조원(2020년 10월 기준 6,890억 달러) 규모로 세계에서 세번째로 큰 연기금이다. 2020년 5월, 국민연금은

2025년까지 해외 투자 보유 주식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연금은 지속가능성을 **투자 원칙**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긴 하지만 그의 개발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은 석탄 발전소 개발기업 3곳의 42억 달러 규모의 지분을 소유함으로써 석탄 발전소 개발에 투자하는 세계 투자자 중 **5위**를 차지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최근 환경, 사회, 거버넌스(environmental, social and corporate governance, ESG) 기준을 국내 지분 및 채권 투자에 통합하겠다는 **관심**을 보였지만 해외 포트폴리오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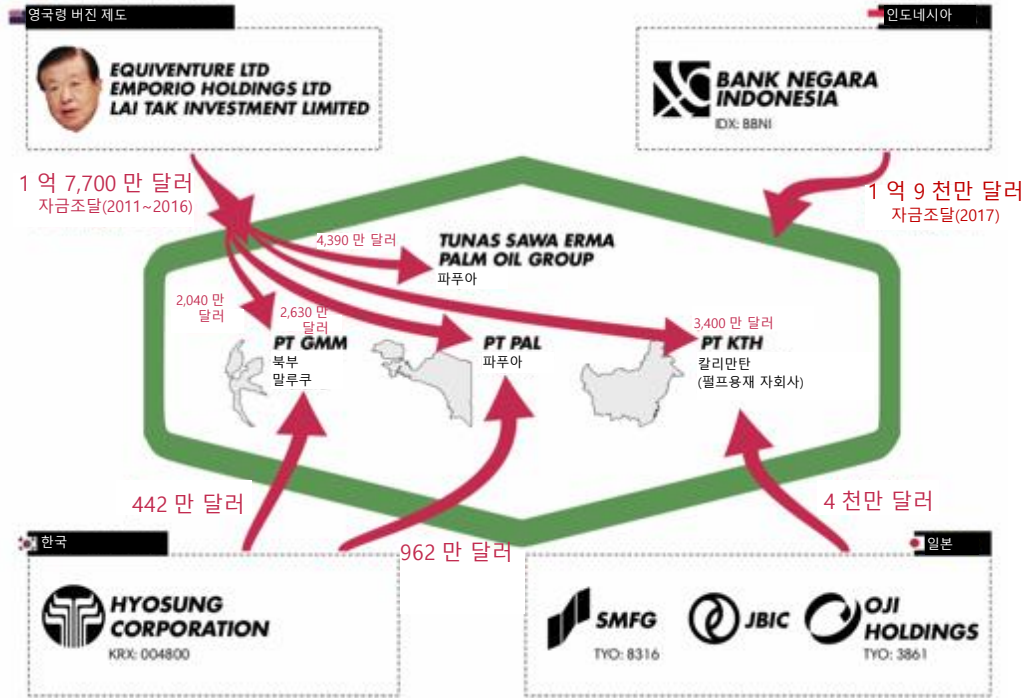
**국민연금은 포스코 외에 한국 기업 삼성물산, LG 상사와 SK 에코프라임의 주요 주주이기도 하다.** 2020년 4월 기준, 국민연금은 이 세 기업에 **540만 달러**(조정 전 13억 달러), **220만 달러**(조정 전 3,700만 달러), **1억 1,000만 달러**(조정 전)를 각각 투자하였다.

블랙록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의 두번째로 큰 주주회사로, **1,590만 달러**를 투자하였다. 2019년 8월 발표된 **블랙록**에 관한 한 연구는, “ESG 이음표를 붙인 펀드에 수많은 산림파괴 고위험 주식 및 분쟁과 연관된 증권이 포함되어 있다”며 이 세계 최대 펀드 매니저가 산림파괴와 토지 분쟁에 재원을 공급하는 일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그 외 확인된 큰 규모의 한국 포스코 투자자는 삼성생명보험(450만 달러)와 미래에셋금융그룹(240만 달러)이 있다.

### **코린도의 주요 주주들은 ESG 정책에 뒤쳐지고 있다**

**코린도의 직접투자자들은 인도네시아, 일본, 영국령 버진 제도, 한국에 있다.** 2018년 발표된 코린도의 투자자에 관한 **연구**는 코린도가 받는 직접 투자에 세 개의 유형이 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와 일본의 상업은행 및 정부소유 은행에게서 받는 것, 한국과 일본의 합작투자 파트너에게서 받는 것, 코린도 의장 승은호가 이끄는 페이퍼컴퍼니(표 13)에게서 받는 것이다. 코린도그룹은 그가 받는 **용자**의 절반 이상을 인도네시아 정부의 Bank Negara Indonesia(BNI)에서 받는데 이 은행은 효과적인 실사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본 또한 연관되어 있는데, 이는 일본이 코린도의 우드칩 및 목재 상품의 주요 수입국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SMBC 그룹(Sumitomo-Mitsui Financial Group 혹은 SMFG로 알려지기도 함)는 코린도의 펄프용재 자회사 PT Korintiga Hutani(PT KTH)의 자금조달처다. 또한, SMBC는 코린도의 주요 일본 사업 파트너인 Oji Holdings와 Sumitomo Forestry에도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조달한다. 용자를 줄 당시 SMBC는 인권 혹은 산림분야에 특정한 정책을 갖고 있지 않았다.

표 13: 2018 년 코린도그룹의 산림분야 사업에 들어간 확인된 용자 및 투자(미화)



출처: Rainforest Action Network, TuK-INDONESIA, Walhi and Profundo. [Perilous: Korindo, land grabbing & banks \(2018\)](#)

한국의 거대 가족기업인 효성은 코린도의 자회사 PT PTAL 과 PT GMM 에 지분을 갖고 있는 유일한 한국 기업이기도 하다. 2016 년 9 월, [환경운동연합](#)은 효성의 피투자회사가 ESG 를 위반한 일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효성은 “사실 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답했지만, 2019 년 5 월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코린도의 사업은 코린도 회장이 2011 년부터 소유한 “영국령 버진 제도에 있는 불투명한 회사들”로부터 최소 **1 억 7,700 만 달러**의 재원을 조달받았다.

**고지사항:** 본 보고서 및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는 선정된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한다. Chain Reaction Research 는 Climate Advisers, Profundo, Aidenvironment(각각 혹은 통틀어서 “발행인”이라 한다)의 비법인 협력 프로젝트이다. 본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는 신뢰할 수 있다고 믿는 출처에서 가져온 것이지만 발행인들은 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포함된 정보는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다. 본 문서의 어떠한 부분도 보증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본 보고서는 관련 기사 등의 저자가 현재 판단하는 바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발행인의 의견을 틀림없이 반영한다고 할 수 없다. 발행인들은 본 문서와 그 내용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합동적 혹은 개별적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본 문서의 어떠한 부분도 발행인들의 투자 및 기타 전략에 대한 금융상품의 제공 혹은 투자 조건 및 권고(예를 들어 “구매”, “판매”, “유지”를 하거나 하지 않을 것)가 아니며 그렇게 이해되어서는 안된다. 발행인들의 피고용인들은 본 보고서에서 언급된 기업, 사업, 혹은 투자에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 본 보고서의 어떤 부분도 한 투자자나 잠재적 투자자의 개별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독자는 본 문서의 내용 및 발행인이 제공하는 정보와 데이터에 동의하는지 독립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